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쟁점 및 향후과제」¹⁾

2012. 10

김종원 연구원

1 |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특성

가. 공적수출신용제도

- 공적수출신용제도란,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고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수출 및 투자거래에 대하여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제도임
 -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위축된 수출무역 진흥 및 고용촉진을 위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며 수출확대와 무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 각국과 개도국으로 공적수출신용제도가 확산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변화해왔음
- 현재 각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적수출신용제도를 적극 활

1) 본 자료의 내용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수단이 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UR 타결 이후 WTO에서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수출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1> 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배경

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주요배경
1910~ 1930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및 연맹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 전후복구를 위한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 국제신용보험자연맹(BU) 설립
1940~ 1980	수출신용제도의 확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 전후복구를 위한 지원 급증 • 개도국들의 공적수출신용기관 설립 촉발
1970~ 1980	수출신용 경쟁심화 및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수출신용 경쟁 가속화 • 수출신용사업의 수지 불균형 • OECD 등 수출신용규제 강화
1990~ 2004	국가간 수출신용 분쟁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보조금 지원금지 분쟁 발생
2000~ 2006	세계화·개방화·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험·보증분야의 수익성 증대 • 대형민간보험사의 시장점유율 증가

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1) 공적수출신용기관 개념

-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은 OECD의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 근거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지칭함
 - WTO는 수출신용지원 확대에 의한 과당경쟁을 막고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불허조항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무역상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협약에 근거한 금융상 혜택은 허용하고 있음
-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전통적으로 높은 위험으로 인해 상업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자국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출 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 기업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자국의 수출 촉진을 위해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보증, 보험으로 지원함
 - 금융서비스를 통한 거액의 그리고 장기적인 수출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뿐 아니라, 수출금융전문기관으로서 위험평가 능력과 함께 정보력 및 협상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OECD 회원국 33개국 중 칠레, 아일랜드를 제외한 31개국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구 동구권 국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수출신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2) 공적수출신용의 지원형태²⁾

- OECD 수출신용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수출신용의 지원형태는 크게 수출신용보험·보증, 직접대출·리파이낸싱 및 이차유지지 등으로 구별됨
- 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 회원국은 모두 공적수출신용보험·보증 제도를 공적수출신용의 가장 주요한 지원 수단으로 운영하며 그 외 국가별 필요에 따라 직접대출제도 및 이차보전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① 수출신용보험·보증(export credit insurance·guarantee)

- 수출신용보험·보증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 앞 신용공여은행에게 수입자 또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보증을 의미
- 수출신용보험·보증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공여 없이 상업은행의 대출에 대해 순수하게 대금미회수 위험만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직접대출과 구분하여 Pure Cover라고 통칭함
- OECD 각국은 하나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보험 및 보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보험 또는 보증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담보 내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각국은 특별한 용어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
- 대부분 국가가 수출신용보험을 'Insurance'로, 수출신용보증을 'Guarantee'로 표현하

2)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인용

나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② 직접대출(direct credit) 및 리파이낸싱(refinancing)

- 직접대출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수입자,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또는 금융중개기관 앞으로 공여하는 수출신용을 의미
 - 공적수출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1개국이 직접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직접대출 공적기관이 수출신용 보험·보증을 하는 공적기관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임
- 리파이낸싱은 상업은행 및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제공한 수출신용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수입자의 시장금리 하락기조 등에 대응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하여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것 등을 의미함

③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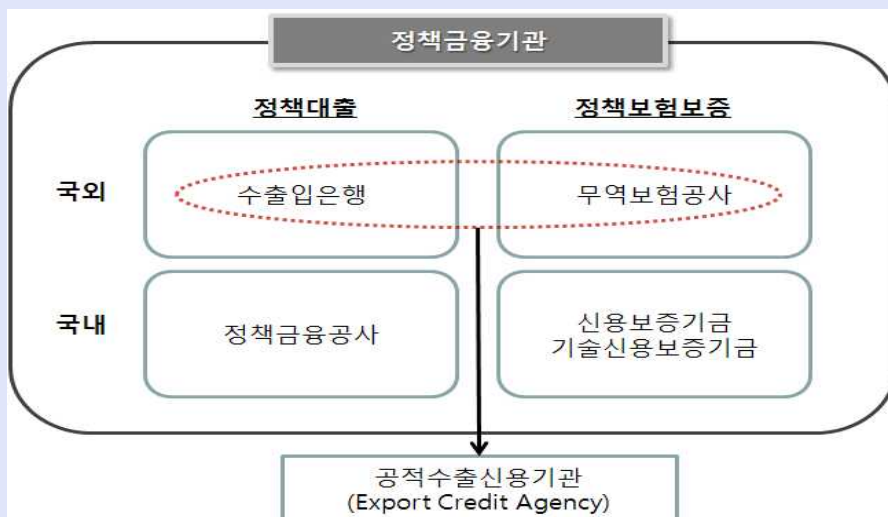
- 이자율지지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상업은행이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조달금리인 단기 변동금리(마진포함)가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CIRR을 초과하면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해 주고, CIRR에 미달하면 환수하는 이자율 스왑 형태의 이차보전제도를 의미함

2 |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

- 우리나라는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1969년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한국외환은행에서 대행하던 중·장기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함
- 그리고 이와 함께 수출보험 측면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77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대행하던 수출보험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도록 하였음
 - 수출입은행의 중·장기금융 및 해외투자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금융의 담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수출보험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운영기구의 독립과 이에 따른 조직의 확대, 개편이 요구되었음
 - 90년대 초, 선진국의 수출보험 활용률이 20~30%였던 반면, 우리나라 수출보험 활용률은 3% 수준에 머무름
-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행 운영체제로 수출보험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³⁾
 - ①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이질적 업무인 금융과 보험을 모두 활성화시키기 어려움
 - ② 책임전담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영이 곤란함
 - ③ 특정보험종목(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이 됨에 따라 위험의 과감한 인수가 곤란함
- 이 밖에도 수출보험 건수가 증가됨에 따른 업무량 증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 개발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1992년, 수출보험업무를 독립전담기관체제로 전환하게 됨
-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2개의 공적수출신용기구를 운영 중임

[그림 1]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



출처: 강동수, 「공적보증기관의 기여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2012)

3) 『한국 무역보험의 중·장기 발전과제』(2010) 참조

가. 한국수출입은행(주무기관: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법 제정과 함께 1976년 수출금융 전담기관으로 설립됨
-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는 고유업무인 금융업무와 정부위탁업무인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관리 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업무는 수출금융, 수입금융, 해외투자금융, 은행간 수출신용, 단기무역금융, 보증, 수출신용과 환경심사 업무로 나눌 수 있음

<표 2>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지원실적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률 (2011년 기준)
금융지원	대출	38.8	42.8	10.3
	보증	25.6	24.4	△4.7
	합계	64.3	67.3	4.7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1 Annual Report」

나. 한국무역보험공사(주무기관: 지식경제부)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199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공사의 주요업무로 우리나라의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고 있음
 - 수출보험제도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이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수출 등 대외거래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익적 특수성을 가진 제도임
 -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현재 단기성(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중·장기성(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을 포함하여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한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을 운용

<표 3> 한국무역보험공사 연도별 인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인수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2011년 기준)
	2009	2010	2011	
단기	1,443,997	1,624,168	1,706,123	5.0
중·장기	131,841	160,349	138,286	△13.7
신용보증	59,637	61,962	59,093	△4.6
환변동	14,128	27,043	18,292	△32.4
계	1,649,603	1,873,522	1,921,795	2.6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공시 자료

다. 쟁점사항

- 1992년 대출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기대출금을 스스로 부보함에 따른 운영리스크문제 등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무역보험업무를 분리하였으나, 수행 업무의 중복성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본력 확충 등을 이유로 통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1) 통합 운영 논리

- (자본확충 측면) 무역지원 관련 기관이 통합되면 자본력이 확충되어 대출 여력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해외플랜트 분야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5억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전체 수주의 80% 내외(505억달러)의 점유율을 보임

<표 4> 규모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년(누계)		2011년(누계)		증감률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5억 미만 프로젝트	11,968	18.6	14,442	22.2	20.6
5억 이상 프로젝트	52,512	81.4	50,542	77.8	-3.8
계	64,480	100	64,984	100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 1. 4)

- 세계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중동 및 개도국의 에너지·산업설비 확충 계획에 각종 복구사업들이 추가되어 세계 플린트시장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하면 금융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면서 명실상부한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중복 측면)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역금융 분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2007년 기획재정부가 보증업무의 일부를 한국수출입은행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유사업무로 인한 과당경쟁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
 -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중·장기 구매자신용’으로, 현재 이 부분이 전체 운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지만(약 1% 내외),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투자은행(IB) 업무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업무영역에 대한 신경전은 커질 것으로 보임
- (겸업 측면) 보험과 대출 등의 업무를 한 기관에서 겸업할 경우, 정보생산의 효율성이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음
 - 겸업은행은 간접금융을 통한 장기간의 거래관계 유지로 거래기업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수단 제공이 가능

(2) 분리 운영 논리

- 처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분리하려던 이유인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음
 - 한 기관에서 대출과 보험업을 겸업했을 때, 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해 보험을 취급할 수 있어 운영리스크가 발생 가능
 - 겸업으로 인해 고위험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경제전반의 체계를 고려할 때, 2개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수출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로 볼 수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관의 성격상 상이한 위험선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부응이 가능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법의 규율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대출이 가능한 반면에

차주의 현금흐름을 반영한 신용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제약이 있음

- 반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험인수의 범위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 시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보다 과감한 투자 영역에 적합함
- 동일한 차주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이한 위험선호와 위험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음

3 | 해외 공적수출신용기구의 운용 현황

가. 해외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용 현황⁴⁾

- 다른 국가들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수출보험·보증기관만을 운영하는 경우, 수출보험·보증기관과 직접대출기관을 병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표 5> OECD 국가별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¹⁾

구분	국가수	국가
수출보험기관만 운영 (직접대출기관 부재)	1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이스라엘
수출보험기관 및 직접대출기관 병립	7개국	한국,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일본, 체코, 헝가리
수출보험·직접대출 통합기관 운영	7개국	멕시코, 미국, 슬로바키아, 캐나다, 터키, 호주, 슬로베니아
합계	31개국	

주: 1) 운영형태별 분류 시 리파이낸싱과 이차보전제도만을 취급하는 공적기관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리파이낸싱은 직접대출의 보조수단으로 대부분 직접대출기관에 의해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이차보전제도는 고정금리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임.

출처: 2010 『세계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자료: OECD Yellow Book)

4)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참조

- 세 가지 운영 형태 중 우리의 관심사인 보험·보증기관 및 직접대출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와 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수출보험·보증기관 및 직접대출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

-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보험·보증기관과 직접대출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7개국임
- 이 국가들의 경우, 보통 상업은행의 대출에 대해 수출보험·보증기관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인수하고 직접대출기관은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고정금리대출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있음
 - 대부분 이들 국가에서는 은행과 보험사 간 각각의 업무영역을 정함으로써 경합을 피하는 방식을 채택
-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특히 일본은 금융법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① 일본 (NEXI, JBIC)

구분	수출보험·보증	수출금융	이자보전
공적수출신용기관	NEXI	JFC(JBIC)	없음
유관기관	없음	없음	없음

- NEXI : JBIC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일본기업들의 수출보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공적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 NEXI는 현재 주로 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설립당시 정부로부터 자본금 1,043억엔을 출자받은 이후, 추가출자 없이 보험료 수입과 회수금 수익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 JBIC : 자원의 개발 및 취득 촉진,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 환경 보전 목적의 해외사업 촉진, 국제금융질서 혼란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한 국제금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된 공적법인임
 - 2008년 10월,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및 국제협력은행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주)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출범했으며 국제적 신뢰를 위해 JBIC 명칭을 계속 사용
- 대출, 보증 및 출자업무를 취급함
 - 수출금융(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 등의 개발도상지역 앞 수출 및 기술제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수입금융(일본에 중요한 자원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투자금융, Untied Loans⁵⁾, 출자, 보증,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금융 등을 지원함
 - JBIC는 설립법에 규정된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보완 및 경쟁불가”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과 60:40의 공동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상업은행의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기관인 NEXI의 수출보험을 요구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분담
- 전액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로 2010년 자본금이 1조 910억엔이며 필요자금은 정부차입, 정부보증채권 발행 및 자체차입으로 조달

<표 6> NEXI, JBIC 지원실적

(단위: 십억엔)

구분	지원 금액	
	2010년	2011년
NEXI (인수실적)	8,583.0	8,537.7
JBIC (승인실적)	1,765.9	1,595.9

주: NEXI 인수실적금액은 계약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BU 룰에 따라 장기 수출신용보험의 경우 자본재 관련 금액을 포함함

출처: NEXI, “Annual Report;” JBIC, “Report on FY2011 Operation”

- 일본은 JBIC와 NEXI 두 기관 모두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형태로, 한국과 공적수출보험기관인 NEXI의 수출보험을 요구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분담
- 5) 일본과의 무역·투자관계 유지 및 확대, 일본의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일본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 글로벌 환경 및 국제금융질서의 유지 등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응자

출신용기관 운용형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JBIC와 NEXI 간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큰 차이가 없으나,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피하고자 노력함⁶⁾
 - 이를 위해 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질의를 포함한 검토 형식과 항목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며 환경적·사회적 고려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

② 독일

구분	수출보험·보증	수출금융	이차보전
공적수출신용기관	Euler Hermes	KfW IPEX-Bank	없음
유관기관	없음	없음	없음

- Euler Hermes와 회계컨설팅 기업인 PWC는 컨소시엄으로 독일연방정부를 대행하여 공적수출신용지원 업무를 담당
 - EH는 수출신용보증업무를, PWC는 투자보증 및 Untied Loan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재원은 예산법에 의거하여 매년 정부 예산승인을 받은 ‘총누적책임상한선’에 따라 당해연도 신규 인수한도가 설정되며,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료수입 및 회수금 합계를 초과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됨
- KfW는 유럽재건계획하 마샬원조의 관리를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됐으며, 연방정부 80%, 지방정부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배정되는 수출진흥기금과 정부의 출연금이 아닌, 자체 신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
- 국내투자금융, 상업수출금융, 공적수출금융(직접대출), ODA 업무를 취급
 - 직접대출을 포함한 수출금융은 KfW의 4개 자회사 중 하나인 KfW IPEX-Bank에서 운영⁷⁾

6) NEXI 홈페이지 참조.

7) 독일 부흥금융고(KfW)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KfW Mittelstandsbank, 주택사업 및 환경보호 사업과 지자체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는 KfW Forderbank, 수출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담

- KfW 내부규정에 따라 직접대출시 Hermes의 수출보험을 적용하여 대금미회수위험을 KfW에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7> 독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 실적

(단위: 억유로)

구분	연간 실적	
	2010년	2011년
Euler Hermes(수출신용·보증)	21.4	22.7
KfW(수출금융)	599	611

- 주: 1. Euler Hermes 지원실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written premiums, earned premiums, service revenues 총합계임)
2. KfW IPEX-Bank 대출 실적임

출처: Euler Hermes, "Financial Report;" KfW IPEX-Bank, "Annual Report"

(2) 수출보험·보증 및 직접대출 통합운영의 경우

- 수출보험·보증 및 직접대출을 통합하여 단일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OECD 국가들 중 총 6개 국가임
- 이 국가들의 경우 수출보험·보증기관과 직접대출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국가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됨
 - 통상 상업은행의 대출에 대해 수출보험으로 대금미회수위험을 인수하고,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고정금리대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직접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민간 금융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공적수출신용기관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음

① 미국 (U.S.EXIM)

구분	수출보험·보증	수출금융	이차보전
공적수출신용기관	USEXIM	USEXIM	없음
유관기관	CCC.OPIC	PEFCO	없음

당하는 KfW IPEX-Bank, 개도국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KfW Entwicklungsbank(정부부문)/DEG(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한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1934년에 설립된 독립 정부 기관임
- 전액 정부 출자로 법정 자본금은 10억달러이며 필요자금은 재정출연금(신용개혁재정출연금과 구속성원조재정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조달
- 대출, 보증 및 보험업무를 취급함
 - 민간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거나 인수를 꺼리는 신용 및 비상위험을 인수하는 업무 외에 제작금융, 직접금융, 수출보험 및 보증을 제공함
 - 수출보험·보증 및 직접대출에 대한 실적 구성을 살펴보면, 수출보험·보증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U.S.EXIM 지원실적

(단위: 건, %, 백만달러)

구분	승인 수		승인액수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대출(Loan)	15 (0.42)	18 (0.48)	4260.6	6,322.9
보증(Guarantees)	719 (20.4)	784 (20.9)	13,105.9	19,400.4
수출신용보험 (Export-Credit Insurance)	2,798 (79.2)	2,949 (78.6)	7,101.3	7,003.8
계	3,532 (100)	3,751 (100)	24,467.8	32,727.1

출처: U.S.EXIM, "Annual Report," 2011.

② 캐나다 (EDC)

구분	수출보험·보증	수출금융	이차보전
공적수출신용기관	EDC	EDC	없음
유관기관	없음	없음	없음

- 국내무역 및 캐나다 수출의 증진과 그러한 무역거래에 동참하고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에 부응할 수 있는 캐나다의 역량 증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44년에 설립된 공적법인임
- 법정자본금 30억캐나다달러, 2010년 말 현재 자기자본 81억 100만캐나다달러

이며 필요자금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

■ 대출, 보증, 보험 및 출자업무를 취급

- 설립 당시에는 ‘수출신용보험공사’로 보험 및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1993년에 출자,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회사 설립, 국내보험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으며, 2009년에는 설립법 개정을 통해 수출거래뿐 아니라 국내무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함
- EDC 지원 실적을 보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이고 보험·보증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9> EDC 승인실적¹⁾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승인실적	
		2010년	2011년
자기계정	대출	13,408 (15.8)	14,627 (14.2)
	보험	65,331 (77.2)	81,018 (78.8)
	보증	5,877 (7.0)	7,174 (7.0)
	합계	84,616 (100)	102,819 (100)

주: 1) EDC의 자기계정(Corporate account)은 정부계정(Canada account)과 구분되며,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 없이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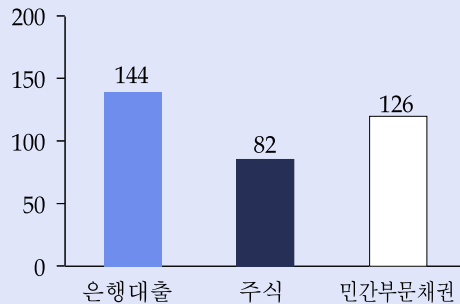
출처: EDC, “Annual Report,” 2011.

나. 분석 및 시사점

- 공적수출신용기관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보통 은행의 대출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공적수출보험기관만을 운영하며, 자본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수출보험·보증 및 직접대출 통합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음
 - 수출보험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유럽권이며, 유럽은 전통적으로 은행중심 금융구조(bank-based financial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
 -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서의 통합형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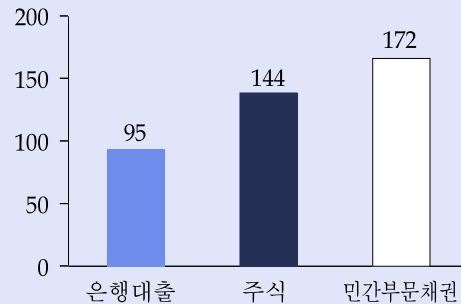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금융구조

(단위: GDP 대비 %)



미국의 금융구조

(단위: GDP 대비 %)



주: 2007년 기준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9. 4),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2009. 8. 5)에서 재인용

- 그리고 과거 선발 공업국에 비해 산업 및 금융이 뒤쳐진 후발국의 경우 분리된 영체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임
 - 공적수출보험·보증 기관과 직접대출 기관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각각의 업무영역을 정함으로써 업무중복으로 인한 경합을 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위의 논리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민간 금융시장의 인프라와 소규모 개방금융의 구조가 취약하고 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출신용기관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2012년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에 따르면, 전체 144개국 중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71위, 대출의 용이성 115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 순위는 110위로 나타남⁸⁾

8) 서울신문(2012.9.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6016013>>

4 | 결론 및 향후 과제

- 수출입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분리운영되어 왔으나, 공적수출신용이라는 공통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통합하느냐, 지금과 같이 분리운영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2012년 국감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대외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능재편이 주요 정책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⁹⁾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는 필연적 논리 우위가 있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선진국들도 하나의 방식만을 선호하기보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OECD 국가를 살펴보면, 수출보험기관만 운영하는 국가, 한국과 같이 수출보험기관과 직접대출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 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가 다양하게 존재함
- 따라서 효율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외 수출입산업 환경과 현재의 국내 금융환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운영체제 안에서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음¹⁰⁾
- 첫째, 수출시장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경쟁구조가 아닌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 민간금융이 부재한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위험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과 위험인수가 공동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가

9) 내일신문(2012.10.16.),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um=683999&sid=E&tid=6>>

10) 강동수, 「공적보증기관의 기여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2012.) 외 참조

이드라인이 필요함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투자은행(IB)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업무영역에 대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¹¹⁾
 - 이번 시도를 계기로 좀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공적수출신용기관 간의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밀접하게 공유하게 되면 외부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경영실태에 맞춘 적합한 금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 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위한 기관 간 협정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및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적격성, 지원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합의함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 기업지원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한국경제(2012.07.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1217931>>

[참고문헌]

- 김선호, 「겸업주의 금융제도 효과에 대한 고찰」, 『규제연구』, 제19호, 한국금융연구원, 1997.
- 김창모, 「외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2008. 12, pp. 533~551
- 강동수, 「공적보증기관의 기여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KDI, 2012. 7. 6.
- 류재상, 「공적수출신용의 변천과정 및 최근 시장동향」, 한국무역보험공사, 2007. 9. 10.
- 송상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송상진, 한국은행, 2012. 8. 22.
- 이승영 외, 『한국무역보험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 2010-12-20호, 2010. 12.
- 이은재·백낙정, 「WTO/OECD규범하에서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인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제도 비교연구」, 『수출보험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4.
-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자료, 2010. 4.
- 한국수출보험공사,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한국수출보험공사, 2010.
- 한국수출입은행, 「Annual Report 2011」, 2011.
- 한국은행, 「유럽 금융구조의 특징과 은행부실정리의 중요성」,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8. 5.
- EDC, “2011 Annual Report,” 2011.
- Euler Hermes, “Financial Report,” 2011.
- JBIC, “Report on FY2011 Operation,” 2011.
- KfW, “IPEX-Bank Annual Report,” 2011.
- NEXI, “Annual Report,” 2011.
- U.S.EXIM, “Annual Report,” 2011.
- 내일신문, 「대외정책금융기관들<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정책금융공사>본격 통합논의」, 2012.10.16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um=683999&sid=E&tid=6>>

서울신문, 「국가경쟁력 올랐는데, 한국 24위→19위…5년만에 반등」, 2012. 9. 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6016013>>

지식경제부, 「해외플랜트 역대 수주실적 경신」, 보도자료, 2012. 1. 4.

한국경제, 「4대 정책금융기관, '신사협정' 맺는다」, 2012. 7. 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1217931>>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sure.or.kr/>>

JBIC 홈페이지, <<http://www.jbic.go.jp>>

NEXI 홈페이지, <<http://www.nexi.go.jp>>